



2015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 출발



LX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로 국토의 새로운 가치를 꽃 피웁니다

첨단 3D 측량기술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국가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과 의사결정의 기초

국공유지 및 바닷가실태조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 등 정부가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결정하는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도로명주소기본도사업, 공간 빅데이터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재난·재해 예방

재해지역 현황관측 데이터에 기초한 침수흔적 관리시스템, 비거주지역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돕는 국가지점번호 사업 그리고 대피정보와 기상특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인 LX토지알람-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견인차

대한민국 지적·공간정보 대표로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선도합니다. 내·외부 세미나를 개최해 산·학·관·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산업 발전의 뿌리가 될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SPATIAL INFORMATION LEADER LX가 만드는 공간의 역사, 인류의 미래가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합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내는 국가사업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첨단 장비와 기술로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적정보가 구축되면 국가 공간정보와 다양한 행정정보를 융합할 수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강화, 분쟁과 불편 해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탄생할 디지털 지적도는 지표뿐 아니라 지하와 지상 등 국토의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가 발전합니다. 또한, 지적도와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확인을 위한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합니다.

CADASTRAL RE-SURVEY PROJECT 디지털 지적정보로 국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로 편리한 삶에 기여합니다

풍부한 현장측량 경험과 기술력으로 우리 국토를 신속·정확하게 측량하며, 국민들의 편리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프라의 토대가 되는 지적측량 서비스

LX대한지적공사는 12개 본부, 186개 지사에 달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신속·정확한 측량 서비스와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적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과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은 측량 서비스 결과를 활용해 국가 인프라를 건설합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부터 수수료 부담 완화까지

경계복원 측량 후 경계점 표지가 유실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실비로 경계점 표지를 한번 더 설치하는 One-More 서비스, 같은 필지에서 여러 종목을 측량할 경우 종목당 기본 수수료의 30%를 할인하는 패키지 측량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는 지적측량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지적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LX땅울림-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합니다.



CADASTRAL SURVEY SERVICE 영의 가치를 가능하고 국토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앞선 기술과 자부심으로 세계를 향합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키워온 전문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한편, 국내 민간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지적·공간정보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지를 누비며 개척한 해외시장

LX대한지적공사는 효율적인 토지행정제도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선진 지적제도와 측량기술을 전파합니다.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자메이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중소기업들의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1981년 국제측량사연맹(FIG) 가입 이후, LX대한지적공사는 다양한 국제심포지엄과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ESRI社, 네덜란드 지적청 등 10여 개 국가의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전파하는 선진 기술

LX대한지적공사는 저개발 국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선진 기술을 지구촌에 널리 전파합니다. 또한 라오스와 베트남을 시작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FIG의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월드뱅크(WB)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한편, WB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는 등 저개발 국가의 지적·공간정보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OVERSEAS PROJECT 영에 대한 영으로 LX의 무대를 넓혀갑니다

Achievement & Possibility

새 출발을 향한 가능성



5201개의 자격증을 갖춘 우수 인력 3690명

LX대한지적공사의 힘은 전국 12개 본부, 186개 지사에 있는 3690명의 우수한 전문 인력에서 비롯합니다. 5201개에 달하는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및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국토의 정보화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 9248만 원

대표부터 신입사원까지, LX대한지적공사의 임직원은 공사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임직원 1인당 매출 1억 원 이상, 부가가치 924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91,320 3,700 9,248



LX토지알림-e 앱 이용자 수 9만 1320명

LX토지알림-e는 토지의 현장 상황을 직접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까지 9만 1320명(2013년 기준)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운로드 수가 더욱 증가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적재조사로 완성된 디지털 지적

3700만 여 필지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에 완료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3700만 여의 필지 정보가 디지털로 구축됩니다. 약 1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완성되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국토를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LX대한지적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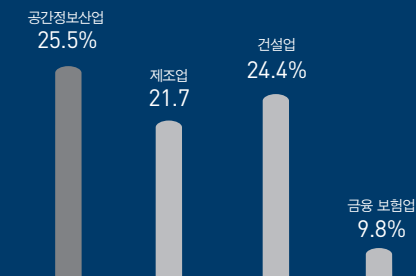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중동)
T.063-906-5000 전국 어디서나 1588-7704
www.lx.or.kr

세계로 뻗어가는 LX 15개국

대한민국 대표 지적·공간정보 공공기관으로서, 세계 각국에 앞선 기술을 알립니다.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자메이카, 투르크메니스탄 등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지적제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산업 부가가치율 출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의 부가가치율 25.5%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부가가치율은 1조 3900억 원, 부가가치율은 25.5%에 달합니다. 산업전체가 24.3%, 제조업,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이 각각 21.7%, 24.4%임을 감안하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 가치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New Start, New Vision

2015년, LX대한지적공사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 출발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온 LX대한지적공사가

2015년,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과 다양한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해온 전문성을 살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국토 공간정보 조사·관리 기관으로 거듭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국토 공간정보의 미래 청사진'이라는 큰 시명을 안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공간정보산업의 메카로 키워 가겠습니다.

Happier, Smarter Broader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공간정보는 역사·문화·교육·쇼핑·의료 등 삶의 모든 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ICT 등과 결합하여 현재의 삶은 더 편리하게 하고, 예측·전망 가능한 미래를 제시합니다.

2. 대한민국이 보다 스마트해집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해 우리 땅 곳곳을 싹틔움처럼 이르면 국토의 미래 계획을 보다 스마트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는 현실 공간을 사이버공간으로 옮기는 사이버국토 건설의 기반이 됩니다.

3. 가능성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LX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앞선 기술력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그 무대를 넓혀갈 것입니다.

